

'먼지 속에서도 꽂은 핀다' 탄자니아에서 만난 희망의 노래



돌아보니 그곳이 천국이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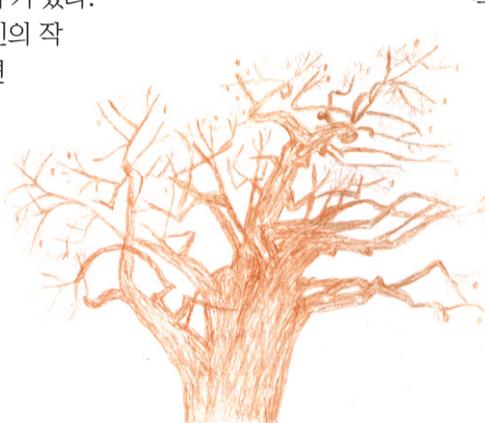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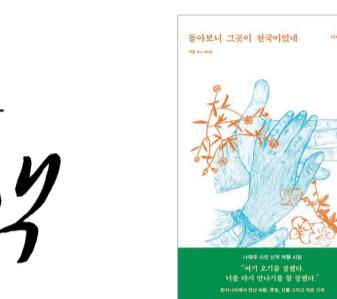
나태주 지음

"선인장이 나무로 자라고/ 유카의 꽃대공도/ 전신주만
큼 자라는 땅/ 그렇다!/ 풀이 끝내/ 나무가 되는 땅."
(아, 탄자니아' 전문)

동아프리카의 국가로 대부분이 평야와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으로 인도양이 펼쳐져 있고 북으로 우간다, 케나 등과 맞아 있다. 공식수도는 도도마다. 열거된 내용 만으로는 어떤 나라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나리에는 탕가니카호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 깊은 호수 있다.

바로 탄자니아다. 위의 시는 나태주 시인의 작품이다. 우리네 자연과 서정을 암축적이면서도 리듬감 있는 시어로 노래해 온 시인이 웬 탄자니아를 소재로 시를 썼을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 시인은 80세를 맞아 "생애 최상의 여행"이라 끊는 탄자니아를 여행했다. 팔순이 넘은 노(老) 시인이 장장 21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날아간 그곳에



는 시인이 6년 동안 후원해온 아이가 살고 있었다. 후원을 시작할 당시 여덟 살이었던 아동은 소녀로 자라 있었다.

시인은 "더 일찍 이 나라를 보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제 라도 가보았으니" 괜찮다는 마음도 들었다.

최근 시인이 펴낸 '돌아보니 그곳이 천국이었네'는 탄자니아 여행을 매개로 창작한 시 등을 모은 작품집이다. 모두 신작시 134편이 실렸다.

저자는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 다시 말해 터닝 포인트를 네 가지 들었다. 질병, 실패, 독서, 여행이다. 전자 두 개는 위험한 일이어서 될 수만 있으면 권유하는 것이 후자인 두 가지 즉 독서와 여행이다.

시인은 조금 일찍 여행을 갔더라면 시와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주 많이 아쉬워 남는 여행이었다"면서도 "느낌의 결과를 시로 남길 수 있었다"는 사실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

책에는 시인이 직접 그린 연필 그림도 수록돼 있다.

62점의 연필화와 운무 영화의 그림 15점이 담겨 있어 시에 대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다.

탄자니아로까지의 여행길은 한국 월드비전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

전의 도움이 있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은 세계의 취약한 아동, 가정 등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글로벌 NGO다. 시인이 탄자니아 아동을 후원하는 데 월드비전이 다리역할을 해주었을 것 같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탄자니아의 시'는 말 그대로 탄자니아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먼지 속에서도 꽂은 핀다'는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감성이 배어나오는 시다. ".../붉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불은 흙먼지/ 도로변 나무나 풀에 쌓여/ 나무나 풀들 숨도 못 쉬고 시들어가는데/ 신기하기도 해라/ 새로 핀 꽃들은 어느 것이나 상상하고 깨끗하고/ 예쁘기만 하다/ 이것이 오늘의 희망 아니겠나..."

작품은 탄자니아 칸사이 마을을 찾아가는 여정에 보았던 차창 밖의 풍경을 형상화한 것이다. 화자는 자욱한 흙먼지를 뒤집어 쓴 풀이나 나무가 시들지만 새로 꽃망울을 틔운 꽃들은 하나같이 예쁘다고 노래한다. 흙먼지 길에서 희망을 보는 화자의 시선은 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아이들에게로 향한다. '나 어려서 어느 한 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며 희망은 점차 확대된다.

2부 '생명의 선물'은 시인이 삶의 여정에서 함께한 이들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시들로 제작져 있다. '돌아보니 그곳이 천국이었네', '꽃밭에 물을 준 뒤' 등 작품들은 특유의 다정하면서도 담백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들이다.

3부 '먼 곳'은 일상의 만남, 인연, 자연 등을 담담하게 노래한 시들이다.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시들에선 시인의 정감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태주 시인은 80이 되던 지난해 자신이 후원하는 탄자니아의 소녀를 현지에서 만났다.

<달 제공>

반복의 쓸모

억만장자 메신저 지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길로 출근하며,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는 삶. 무료할 것만 같은 이런 반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팔로워 22만 명의 인문학·자기계발 작가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억만장자 메신저가 쓴 '반복의 쓸모'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반복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책이다. 변화와 성취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계속하는 힘'에 주목한다.

저자는 반복을 지루함이나 정체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리듬으로 바라본다. 특별하지 않은 행동이 쌓여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반복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일, 짧은 산책, 하루를 돌아보는 몇 줄의 기록처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담겼다.

책을 읽다보면 조급함을 내려놓게 된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독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낸다.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실패나 중단 역시 반복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인상 깊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쌓아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엔 가능성이 숨어 있다. 지금의 좌절도 언젠가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나비효과가 될 수 있다". 매일의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새해의 다짐이 흐지부지됐을 때 이 책은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다. <동양북스·1만9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포퓰리즘 이성

에르네스토 리클라우 지음, 이승원 옮김



현금 살포, 선심성 정책, 극단적 민족주의와 혐오의 정치... .

오늘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상대를 공격하는 가장 순수한 낙인이 됐다. 어떤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불리고, 비슷한 정책은 국민을 위한 선택으로 치장된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이란 무엇이며, 그와 대비되는 이성적 정치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정치 이론가 에르네스토 리클라우의 '포퓰리즘 이성'은 포퓰리즘을 특정 이념이나 정책 노선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포퓰리즘을 정치가 작동하는 하나의 방식, 다시 말해 정치의 논리로 재정의한다.

저자에게 포퓰리즘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보다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는가'의 문제다. 사회에는 언제나 해결되지 않은 요구들이 흩어져 존재한다. 이 요구들이 제도 안에서 응답받지 못할 때 서로 다른 불만들은 공통의 궤적을 매개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인민'이라는 집합적 주체가 등장한다. 인민은 이미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 정치적 대표와 명명, 갈등을 통해 구성되는 결과다.

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는 '비어 있는 기표'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한다. 정의, 자유, 민주주의 같은 말은 의미가 고정돼 있지 않기에 서로 다른 요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저자는 바로 이 불확정성이 정치의 약점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라고 본다.

저자는 포퓰리즘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는 통념을 비판한다. 합리적 합의와 완전한 대표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는 결코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되지 않으며, 정치적 대표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갈등과 적대는 민주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빨간소금·2만5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할 말이 있다

김삼웅 지음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1945년 조선이 해방되던 해, 역들렸던 언어들이 비로소 종이 위로 쏟아져 나왔다. 정지용 역시 '그대들 돌아오시니'를 통해 자유의 기쁨과 함께 식민지 시절 민족이 함께 견뎌온 고통의 기억을 어루만졌다.

말과 글은 역사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역사의 방향을 바꿔왔다. 격동의 시대마다 누군가는 침묵을 거부했고, 누군가는 종이에 적어 시대의 방향을 되돌렸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할 말이 있다'는 한국을 바꾼 역사의 순간은 해방 이후 80년 동안 한국 현대사의 굽이마다 남겨진 글과 말을 다시 불러낸다.

책은 광복 이후 한국 사회의 굽이마다 등장한 말과 글 53편을 묶었다. 연설문과 선언문, 시와 칼럼, 장간사, 격문, 고발장, 최후진술, 판결문까지 형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문학적 수사가 아닌 당대의 '지금 여기'를 드러내기 위해 쓰였다는 점이다.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 해방 직후 국가의 진로와 통일을 둘러싼 목소리에서 출발해 친일 청산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갈등, 언론과 학계의 저항, 독재에 맞선 양심 선언과 학생·시민의 외침으로 이어진다.

한편에서는 권력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며 침묵을 강요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문장으로 맞섰다.

마지막에 실린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위기의 순간마다 민주주의가 어떤 언어로 자신의 원칙을 확인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과거의 문장을 되짚는 일이 곧 현재를 향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달빛서가·1만9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